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발전사

제2세대를 창조하는 방송 및 미디어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약



전 병 우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16대 회장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나 기업의 연륜을 말할 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고 하니, 이제 우리 학회는 한 세대를 채우고 새로운 제2세대에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창립과 지금까지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기술 분야에서 우리 학회는 매우 유일하기도 하며, 그 위상도 막대합니다. 특히 지난 30년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그야말로 방송기술에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이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학회가 공헌한 역할은 참으로 심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인프라 위에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서 출현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전파하며, 또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공학인들의 능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확산에 우리 학회가 소중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송기술을 넘어 미디어로 본격적인 기술의 중심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2015년에 한국방송공학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로 개칭하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 및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로 학회 영역을 더욱 확대한 바 최근에는 영상처리, 컴퓨터비전기술을 넘어 인공지능기술에까지 방송과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학회가 지난 10년간 만들어 온 많은 노력들을 살피고, 1994년 창립으로부터 초기성장을 이루어 낸 첫 세대를 넘어 그 다음의 새로운 세대로 도약하여야 할 우리 학회의 갈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우리 학회의 창립과 성장

우리 학회는 1994년 7월 15일 창립 이후 기반조성기(1994-2004)와 1차 성장기(2004-2014)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디지털 방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TV 실험방송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 개발, 공학인의 전문능력 강화, 정보제공 및 전파뿐만 아니라 확고한 방송기술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가적으로 참여하게 대두된 복잡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 창립 이후 학회의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았던 1997년 말부터 약 4년간 전국민을 힘들게 하였던 IMF 경제위기도 우리 학회는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디지털 TV 방송의 전국망 확대와

DMB 모바일 방송, UHD 방송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1994년 창립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기반조성기(1994-2004)와 1차 성장기(2004-2014) 동안의 다사다난하였던 발전과정은 송재극 고문님의 *창립 20주년 발전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에 있는 우리 학회가 최초 창립총회를 거행했던 장소인 프레스센터에서 다시 거행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사진을 살펴보시며 차분한 일독을 권합니다.(*[방송공학회지 19권 3호\(2014년 7월 발간\)](#) 참조)

II. 우리 학회 제2차 성장기

우리 학회의 처음 한 세대 30년을 채우는 마지막 10년, 즉 2014년~2024년의 기간을 필자는 우리 학회의 2차 성장기로 특별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우리 학회의 중점 분



<그림 1>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14년 7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발전사

야가 미디어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성장의 가능성을 한층 강화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모두 종료되며 완전한 디지털 TV 방송 시대를 맞이하였고, 아울러 통신망이 대용량 고도화되는 2010년 즈음을 지나면서부터는 인프라로서의 방송(또는 통신) 기술보다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2014년 안치득 회장 시기에 학회 명칭의 변경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필자는 그 당시 총무이사로서 회장단을 보좌하며 2014년 내내 이사회와 학회 내 크고 작은 많은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학회의 장기 발전 방향 논의에 참여하며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학회 구성원들은 마침내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방송공학회의 영역이 지난 20년 동안의 방송기술에서 미디어기술까지 포괄되도록 지평을 넓히며 아울러 더욱 미래 지향적인 학회로 거듭 태어나는 기틀을 설정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우리 학회명칭의 변경 이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학회지 제목도 2015년도 발간분(2015년 20권 1호)부터 ‘방송공학회지’에서 ‘방송과 미디어’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취지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방송기술 및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관련 분야 등의 방송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코자 학회명칭을 변경함. 학회명칭의 변경을 계기로 그동안 학계와 연구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학회는 현장과 더욱 밀착하는 학술단체로 산업계와 적극 연계하고 케이블방송과 방송·콘텐츠업계를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방송미디어공학회가 되고자 함.

○ 변경일정

- 2015년 11월 6일 정기총회 정관변경(안) 승인 가결
- 2015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정관 변경 승인
- 2015년 12월 10일 학회명 변경 등기 완료

우리 학회 2차 성장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명칭의 변화에 맞춰 학회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미디어 분야까지 확대하고 그간 학연 중심의 운영을 학연산까지 외연 확장을 통하여 학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명실상부하게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학회 중점 영역을 확대 정립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학회 본연의 가치인 학문적으로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문지/학술지 안정화, 주요 학술행사 정착, 사무국 운영 내실화 및 안정화와 같은 학회의 내부 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학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러 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지난 10년간을 우리 학회의 2차 성장기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학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학회 운영 목표와 세부사항은 <표 1>과 같습니다.

제2차 성장기인 지난 10년간 우리 학회의 주요 발전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학술활동의 정착과 내실화

방송분야의 연구중심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학문분야의 적극적 수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기술분야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학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학술활동의 가치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은 크게 정기 행사와 비정기 행사로 구분되는데, 정기 행사는 춘계 방송과 미디어 기술 워크숍, 하계 학술대회, 추계 방송과 미디어 기술 워크숍이며, 이외에 다양한 비정기적 학술행사가 있습니다(2015년 말 학회명칭 변경에 따라 그 이전의 춘계 및 추계에 열린 디지털 방송기술 워크숍이 2017년부터는 방송과 미디어 기술 워크숍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학회의 정기 학술활동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전송기술과 같은 방송인프라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미디어와 서비스 기술들로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랙티브미디어 기술(VR/AR/MR 등), 메타버스 기술, 미래 자동차 관련 기술, 그리

<표 1> 최근 10년 학회의 주요 추진목표 및 세부사항 (2014~2024)

년도 (회장)	추진목표	세부사항
2014 (안치득)	대한민국 방송공학 대표 학회	- 외연확대 및 명칭 개정 - 논문지 범위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 디지털논문지 발간 (계속) - 대외협력 강화 및 학회 운영의 시스템화 (계속)
2015 (이상길)	대한민국 방송·미디어공학대표 학회	- 방송산업 활동 강화 - 지부 창립 및 활성화 - 외연 확대 - IWAIT 준비
2016 (호요성)	새롭게 도약하는 방송·미디어공학회	- 학회 영역 확대 : 방송과 미디어의 융합 - 국제화 추진 : 학회 위상 증진 및 기술 교류 - 산학 협력 강화 : 방송+플랫폼+콘텐츠+교육 - 회원 증대 및 재정 안정화
2017 (김용한)	안정되고 내실 있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 회원 증대 및 재정 안정화 (연구회 및 단기교육 활성화; 국제 행사 증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회원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 재무관리 시스템 개선 - 사무국 인사 시스템 개선 등
2018 (김동욱)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학회 운영	- 학회 본연의 서비스 충실화 - 미디어 분야의 결실화 및 발전방향 모색 - 방송 미디어 영역의 확대
2019 (전병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학회 핵심가치 혁신	- 모이는 학회 - 배움이 있는 학회 - 널리 펼치는 학회
2020 (이영렬)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를 수용하며 발전	-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회 - 유연성 있는 학회 - 배울 수 있는 학회
2021 (박종일)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가는 유쾌한 도약	- 깊이 연구하는 학회 - 산업을 중시하는 학회 - 즐겁게 교류하는 학회
2022 (이수인)	새롭게 도약하는 방송·미디어공학회	- 학술활동 강화 - 연구영역 확대 - 대외협력 강화
2023 (조남익)	방송·미디어 분야의 연구와 산업을 주도하는 학회	- 학술대회와 논문지 강화와 분야 확대 - 연구와 산업을 이끄는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국제협력/대외협력 강화
2024 (박구만)	방송·미디어 분야의 연구와 산업을 주도하는 학회	- 학술대회와 논문지 강화와 분야 확대 - 연구와 산업을 이끄는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국제협력/대외협력 강화



발전사

<표 2> 춘계 및 추계 정기 기술 워크숍과 핵심 주제 (2014~2024)

년도	춘계 정기 기술 워크숍 주제	추계 정기 기술 워크숍 주제
2014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하에서의 멀티다이멘셔널 방송콘텐츠 제공 기술	(별도 지정 없었음)
2015	방송 기술과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Challenging the Future of Broadcasting by Mobile and Immersive Media Experience
2016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개발 현황	VR·AR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2017	UHD/VR 방송 기술과 서비스	UHD 시대의 미래 미디어 기술
2018	인공지능과 미래 미디어 기술	New Broadcast/Broadband Media Services Beyond UHD
2019	5G 시대의 미래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Dynamic Future-facing Media Services
2020	MPEG-I 표준화 및 응용 서비스 기술	미래 콘텐츠와 delivery 기술: AI, Volumetric MR 콘텐츠, 5G/6G
2021	메타버스(metaverse)를 위한 XR미디어와 인공지능 기술	모바일 방송/통신과 미래 자동차 서비스 응용
2022	디지털 전환과 방송·미디어	디지털 전환과 방송·미디어 2.0
2023	AI가 바꾸는 미래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방송기술의 현재와 미래 - NextGenTV와 미디어지능화를 중심으로
2024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	생성형 AI와 방송 미디어

<표 3> 확산기술 워크숍 주제

년도	확산기술 워크숍 주제
1회 (2019)	AI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과 기술 혁신
2회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미디어 및 서비스 기술
3회 (2021)	미래방송과 메타버스 미디어
4회 (2022)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미래
5회 (2023)	차세대 휴먼 미디어 인터페이스 기술
6회 (2024)	인공지능 융합으로 확장되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과 경험

고 인공지능미디어 기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비정기 학술행사로서는 오랜 연륜이 배어 있는 실감미디어 워크숍, 실감미디어 심층기술 워크숍, 홀로그래피 심층기술 워크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2019년부터 신설되어 매해 열고 있는 확산기술 워크숍입니다. 그간의 주제는 <표 3>과 같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학회의 외연을 넓히고 방송 및 미디어와 관련된 기존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2019년 필자가 회장으로 있을 때, 확산담당 상임이사를 사업위원회에 새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시킨 워크숍입니다. 향후 우리 학회의 좀 더 역동적인 확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학술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10년 우리 학회가 새롭게 역점을 둔 또 한 가지

는 교육위원회를 통한 우리 학회의 교육기능 강화였습니다. 이 노력의 결실로 2016년 제1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기본 교육을 필두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학 강의실과 같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습을 동반한 하루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대학원 신입생들이나 연구개발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주제들은 <표 4>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미래방송기술 워크숍(2014), 딥러닝 기반 방송미디어 기술 워크숍(2016),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기술 워크숍(2017), 미디어와 융합하는 인공지능 기술 워크숍(2021), 미래 라디오 방송 세미나(2023)와 같은 비정기적 행사도 있었습니다.

<표 4> 주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내용

년도	교육프로그램 제목	주요 교육 내용
2016	제1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기본	Signal Processing for Image Acquisition & Display 외 11개 강좌
2017	제2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기본	영상 획득과 디스플레이 외 11개 강좌
	특허교육	아이디어를 특허로
2018	제1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을 위한 OpenCV 프로그래밍	OpenCV의 기초 및 실습
	제3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기본	영상 획득과 디스플레이 외 10개 강좌
2019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기계학습 및 인공신경망 기초 프로그래밍실습 단강좌	인공신경망 기초 실습 및 단기 강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응용 및 실제	비디오 다중 객체 추적 이해 및 실습 외 5개 강좌
2020	제4회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기본	영상처리 기초에서 Deep learning까지의 12개 강좌
2021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이론 및 실습	딥러닝 기초 및 딥러닝 응용 이론과 실습
2022	동계 교육	기계학습 및 딥러닝에 대한 기초 튜토리얼과 핵심 응용 기술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처리를 위한 딥러닝 이론 및 실습	딥러닝 이론 및 실습
2023	동계 교육	영상 처리 및 이해를 위한 초/중급 딥러닝 강좌
	딥러닝 기초 실습과 함께하는 최신 컴퓨터 비전 이론 교육	딥러닝 기초 실습과 함께하는 최신 컴퓨터 비전 이론
2024	영상 처리 및 이해를 위한 초/중급 딥러닝 강좌	영상 처리 및 이해를 위한 초/중급 딥러닝 강좌
	딥러닝 기초 및 실제 적용을 위한 최신 응용 기술 교육	딥러닝 기초 및 실제 적용을 위한 최신 응용 기술 강좌

<표 5> 최근 10년 우리 학회 논문지와 하계학술대회

년도	논문지 출간편수	하계 발표논문수	하계 참여자수
2014	83	94	124
2015	82	150	190
2016	84	112	135
2017	73	109	167
2018	85	134	180
2019	111	121	153
2020	96	162	214
2021	69	117	185
2022	83	169	321
2023	71	198	364
2024	(최종 집계 전)	231	400

한편 학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논문지 출판분야에서 우리 학회는 출판 논문수의 성장을 저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대부분의 논문지가 겪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 기반을 넓히고 SCI/SCIE 등재를 목표로 하는 영문논문지 발간을 위해 우리

학회는 2014년부터 영문논문지 발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6회 논문지 발간을 2019년부터는 7회로 늘리고, 늘어난 마지막 호(7호)는 영문논문지로 발간하도록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5>에 보는 것처럼 출판논문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



발전사

해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학회의 정기 학술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계학술대회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학회의 하계학술대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2022년부터는 300명 이상이 매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231편의 논문과 400명의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활동적인 우수 연구자들이 많이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공유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학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참여자수와 발표논문수가 방증해 주고 있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 학회 제2세대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2> 2015년 하계학술대회 (제주대학교)



<그림 3> 2018년 하계학술대회 (제주한라대학교)



<그림 4> 2022년 하계학술대회 (메종글래드제주호텔)



<그림 5> 2023년 하계학술대회 (메종글래드제주호텔)



<그림 6> 2024년 하계학술대회 (메종글래드제주호텔)

2. 학회의 회원기반과 외연의 확대

최근 10년 우리 학회가 역점을 둔 또 하나는 방송 및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회원기반을 넓히고 아울러 산학연 단체와 상호협력 등의 외연을 확대하여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공헌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대 회장단들은 회원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확대된 가치를 강화하고 미디어 분야의 연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회를 출범시키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실의 하나는 2019년 최초로 설립모임을 가지고 2020년 정식으로 출범한 “인공지능연구회”였습니다. 당시 컴퓨터비전분야를 이끌던 활동적인 젊은 연구자들의 의기투합과 우리 학회의 미래 발전 비전이 호응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간 역대 회장단에서도 계속 이어져, 우리 학회에 이미 있었던 “실감방송연구회”, “모바일방송연구회”, “방송전송기술연구회”, “오디오연구회”에 더하여,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머신러닝기반비디오코딩연구회”, “인공지능연구회”, “3D공간미디어연구회” 등이 창설되면서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서 우리 학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학문적 기술적 교류와 다양한 사회공헌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 학회의 연구회 현황은 <표 6>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이를 잘 운영하여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정립해 나가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에는 MPEG 포럼



<그림 7> 유능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신규 연구회 (현재의 인공지능연구회) 창립준비모임 (2019년)

과 상호협력을 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매년 여름 이틀간의 일정으로 “MPEG뉴미디어포럼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Summer School”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딥러닝 기초와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및 영상 이해”(2017년), “Versatile Video Coding and Deep Compression”(2018년), “비디오 부호화 기초와 VVC 심층이해”(2019년), “비디오 부호화 기초부터 표준까지”(2020년~2023년), “비디오 부호화 및 시스템 기초부터 표준까지”(2020년~2023년)였습니다. 양 기관에 속해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MPEG 표준화 경험까지 들을 수 있는 상호협력 프로그램으로써,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현업에 있는 방송기술인들의 단체인 방송기술인연합회와 협력회의를 2019년 제주도에서 갖고, 이후 다양한 방송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표 6> 우리 학회 연구회 현황 (2024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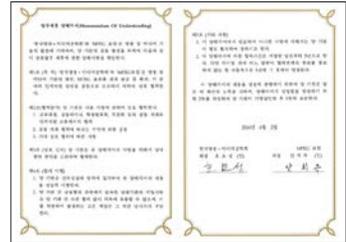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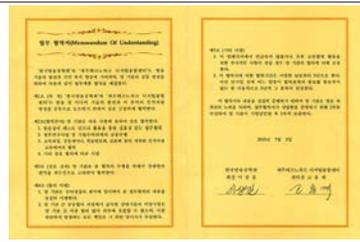
연구회	위원장 (소속)	설립
실감방송연구회 (구 3DTV연구회)	홍기훈 (ETRI)	2007년 (2015년 연구회명칭변경)
모바일방송연구회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2007년
방송전송기술연구회	박성익 (ETRI)	2011년
오디오연구회	백승권 (ETRI)	2012년
머신러닝기반비디오코딩연구회	강제원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인공지능연구회	조성인 (동국대학교)	2020년
3D공간미디어연구회	방건 (ETRI)	2024년



발전사



<그림 8> 2015년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와의 업무 협약



<그림 9> 2016년 MPEG포럼과 업무협약



<그림 10> 2019년 방송기술인연합회와 협력회의 (왼쪽부터 김재근, 전병우, 이수인, 정병희)

3. 방송 및 미디어기술 분야의 국제화 활동 강화

우리 학회는 국제화 활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5월

말 NHK Open House 기술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HK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송분야 기초 및 활용연구 현황, 그리고 일본의 방송기술 발전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학회지를 통하여 국내에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영상정보 및 텔레비전공학회(The Institute of Image Information and Television Engineers(ITE))의 주요 연구진과 매년 상호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 ITE 학회에서 매년 우리 추계학술대회에 일본 전문가를 파견하여 초청연설을 하고, 반대로 우리 학회는 매년 8월에 열리는 ITE Summer Conference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초청연설을 하고 우리 학회와 ITE가 같이 발표하는 공동 논문 발표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간 수년 동안을 통하여 차근차근 검증된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2019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학회는 국제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의 주관 및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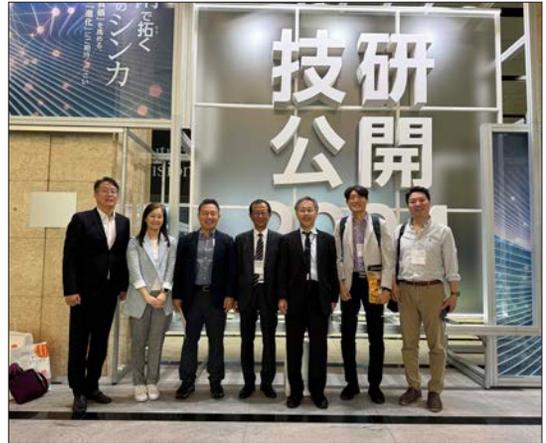
<그림 11> 2013년 NHK STRL Open House 참가



<그림 12> 2014년 NHK STRL Open House 참가



<그림 13> 2017년 Fuji TV 방문



<그림 14> 2024년 NHK STRL Open House 참가 (왼쪽부터 김상균, 정병희, 조남익, 김용한, Shinichi Sakaida, 김정창, 류은석)



<그림 15> 2015년 ITE 임원진과 협력회의



<그림 16> 2018년 ITE 임원진과 협력회의



<그림 17> 2018년 KIBME&ITE Joint Session in ITE Summer Workshop
(좌장: 조남익 교수; 한국측 발표 3편(조남익 교수, 전병우 교수, 박종일 교수) + 일본측 발표 3편)





<그림 21> IWAIT 2016 (부산 부경대학교; General Chair 김용한 교수; TPC Chair 전병우 교수)




IWAIT 2023

International Workshop on Advanced Image Technology /2023

January 9-11, 2023
Maison Glad Jeju Hotel, Jeju, Korea



IWAIT 2023

Organized by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KIBME),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BK21 Four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ICT Future Human Resources

Co-Organized by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IEICE), Japan
Institute of Image Information and Television Engineers (IITE), Japan
Japanese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JSPE-JAPI), Japan

Supported by [Clari](#)

<그림 22> IWAIT 2023 (매중글래드제주호텔; General Chair 전병우 교수; TPC Chair 김재곤 교수)

참가하여 그 운영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에 주기적으로 이 행사를 유지하고 아울러 매해 1월 개최되는 IWAI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금까지 창립 멤버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IWAIT 역대 개최지는 <표 7>과 같습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행사인 IWAIT 외에도 방송 및 미디어 기술분야에 특화된 국제 학술대회인 IEEE BMSB(International Symposium on Broadband Multimedia Systems and Broadcasting) 학술대회를 2012년(연세대학교; General Chair 서중수 교수; TPC Chair 전병우 교수)에 이어, 2019년(메종글래드제주호텔; General Chair 전병우 교수, 박성익 박사; TPC Chair 김정창 교수) 우리 학회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IEEE VCIP(Visual Communications and Image Processing)를 2023년 12월 제주에서 개최(General Chair 전병우 교수; TPC Chair 김문철 교수, 조남익 교수) 하였습니다.

III. 희망찬 다음 세대를 만드는 힘찬 도약을 위하여

우리 학회는 제1차 및 제2차 성장기를 통하여 내실 있는 학회로 뿌리내리고 튼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간 IMF의 어려움, 그리고 아래 사진에도 있듯이 대면 활동이 쉽지 않았던 2020~

2022년간의 코로나 상황 등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SCI/SCIE 논문지 위주의 연구자 평가 시스템에 의하여 국내논문지가 극히 위축되는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을 통한 정보 및 연구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미디어 분야로 학회의 지평을 넓히는 변혁을 능동적으로 시행하고 유능한 연구자들을 영입하면서 최신 학문과 기술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어 전문가 집단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기술정보를 나누는 역할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하계학술대회의 논문과 참가자 수의 증가는 우리 학회가 2차 성장기를 통하여 기울여 온 노력들이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열매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원수가 정체 내지는 아주 조금씩 증가할 뿐이고, 연구개발 및 학문의 세대가 바뀌면서 전통적인 학회의 가치가 다소 희석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희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것은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독창성과 능력이 많은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학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임원 워크샵을 통하여 년차 계획은 물론 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을 꼭 채운 제1세대가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가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학회 활동을 통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성공적인 제2세대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그림 25>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어려웠던 2020년 제1차 평의회 (앞줄 왼쪽부터 박구만, 전병우, 김동욱, 이영렬, 김용한, 박종일, 조남익)



<그림 26> 다양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우리 학회 임원진 (매년 연초 임원 워크샵을 통하여 1년 계획 및 학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음)